

포스코, GE와 발전·에너지 협력

5월31일 양해각서 체결 ... 공동 수주에 전문분야 운영방안 모색

포스코가 GE(General Electric)과 손잡고 에너지용 강재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

포스코와 GE는 5월31일 정준양 회장과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외 발전사업 공동개발 ▲에너지용 강재 개발 적용 및 기자재 제작 협력 ▲신항시장 인프라사업 공동개발 ▲ICT 기술 협력 ▲인재개발 및 교육을 포함한 경영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 5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와 GE는 앞으로 국내외 발전소 신·증설 사업의 수주를 공동으로 참여해 포스코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맡고 GE는 터빈, 보일러 등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GE가 추진하고 있는 오일·가스 분야의 기자재용 특화강재 공동개발과 기자재 제작부문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풍부한 해외 플랜트 수주 경험과 GE의 인프라 기술, 금융,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항시장의 인프라사업 개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GE는 헬스케어, 금융, 가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31>